

고대 문명으로의 초대-피라미드

Invitation from ancient civilization - Pyramid

한광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by Han Kwang-Ho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자의 피라미드 군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한다.

그 거대한 석조물이 저녁놀이 붉게 타오를 때의 경이로움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왕의 영원한 사후세계로의 여행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피라미드는 그 기능에 비하여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다. 하지만 무려 5000년 전(6500년 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에 이를 건설한 이집트인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논하기엔 현대인은 너무나 아는 것이 부족하다.

몇 해전 테마 기행으로 이집트(Egypt)의 기자 피라미드와 아직은 생소한 멕시코(Mexico)의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피라미드 군을 다녀와서 평소에 늘 궁금해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의문점과 더불어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지구 반대편의 두 피라미드 군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동질성에 대한 단상(斷想)을 적어보았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Pyramid)는 고대 이집트왕(파라오)의 무덤(마스타바-피라미드-암굴로 발전)의 일종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그 중 최초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조세르왕(Zoser)의 피라미드와 고왕국 제4왕조 시대 건설된 3대 피라미드인 쿠프(Khufu), 카프레(Khafer), 멘카우레(Menkure)가 가장 유명하며, 이집트의 자존심으로 인류 문명의 자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집트인의 자존심 어귀중의 하나: 이집트 is the center of civilization) 쿠프(Khufu)왕 피라미드는 그 크기 및 규모로 보아 최대를 자랑하며 카프레(Khafer)왕의 피라미드는 상층부에 남아있는 화강암 표피의 흔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아직도 갖추고 있고, 카프레왕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스피нк스(Sphinx)는 건립시대가 틀리지만 이로 인하여 더욱 유명하다. 멘카우레(Menkure)왕의 피라미드에서는 국력의 쇠함인지 손자로서의 겸손함인지 상당히 소박해 보인다. 사카라(saqqara) 지역에 위치한 조세르(Zoser)왕의 피라미드는 역사상 최초의 예술가로 기록되어 있는 임호텝이 설계한 단순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대규모 복합 건물군의 일부로서 피라미드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손꼽힌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여행기에서 주장한 이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도 피라미드 건설후 200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니 그 의문점을 제기하는 역사가도 많다.

멕시코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

흔히 마야문명이라고도 총칭할 수 있는 멕시코 문명에서의 피라미드 역시 멕시코 전역에 지구라트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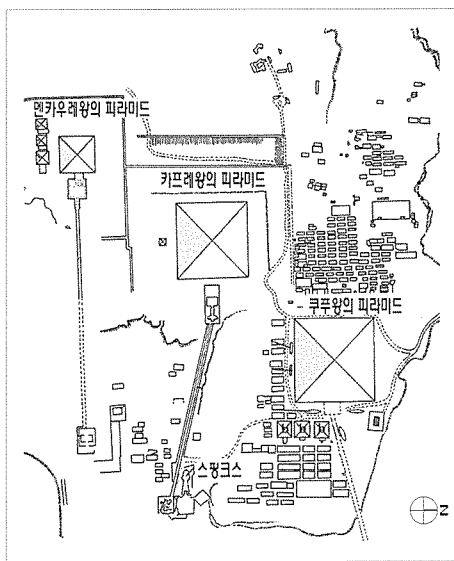
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유카탄 반도에는 수백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군을 찾을 수 있다.

마야문명의 유적들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옥스말(Uxmal)과 치첸이샤(Chichen Itza), 팔렌케(Palenque)등에서는 신전으로 사용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 군이 있으며, 마야시대의 피라미드와 차원을 달리한 멕시코 고원의 유명한 피라미드군인 테오티우아칸의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기차 피라미드와 비견되는 거대한 규모로서 최근 들어 고고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미주 최고의 고대문명의 유적지로서 관광객의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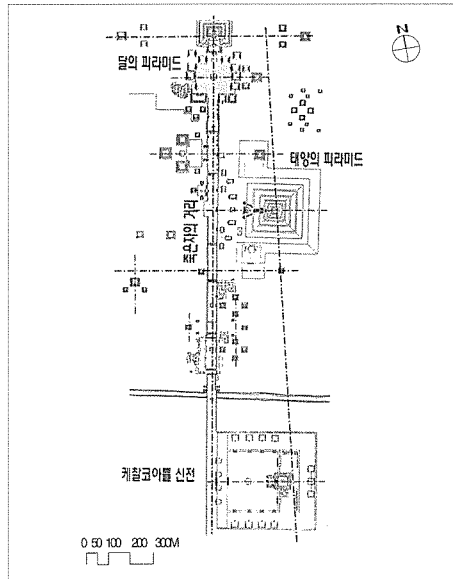
두 피라미드 군의 비교

일명 “사자(死者)의 거리”라 통칭하는 테오티우아칸은 계획화된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신들의 만남 장소”로도 통칭될 정도로 각종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다. 멕시코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내·외부 모두 화강석 적층인 것에 비하여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외부는 다양한 석재로 적층을 이룬 여러단의 계단식형태로 내부는 흙을 채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전체의 건축물 군도 이런 형태이다. 특히 외부에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4각뿔의 커다란 반사경(각 면이 굴곡이 지지 않고 일직선을 이룸)으로 그 찬란함을 발하였다면 멕시코 피라미드는 외부를 회반죽으로 감싼 후 다양한 안료로 벽화를 그렸더니 당시 시대의 현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멕시코에서의 피라미드가 거의 전부 신전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팔렌케(Palenque)의 비명의 신전에서는 지하 26미터 아래서 무덤(파칼왕)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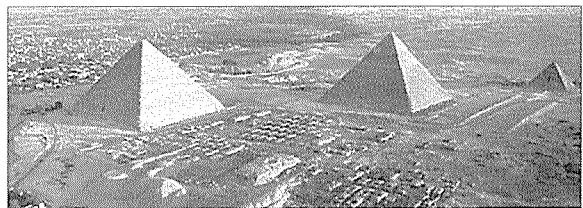


'GIZA'의 피라미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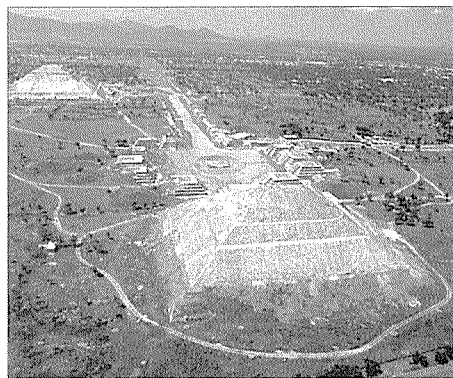


Teotihuacan'의 피라미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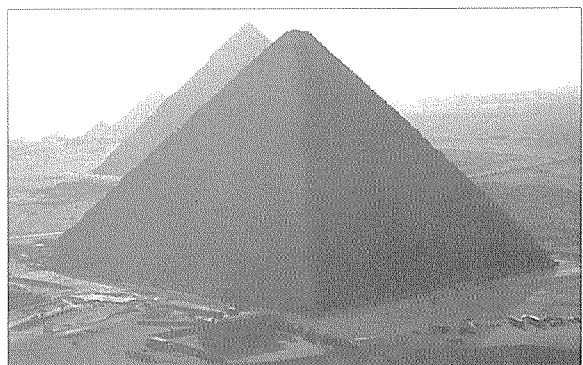
태로 나타나 이집트 피라미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GIZA'의 피라미드 전경



Teotihuacan'의 피라미드 전경



쿠프왕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

〈이집트와 멕시코 피라미드의 비교(제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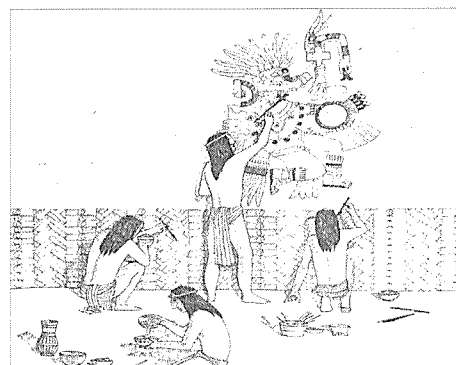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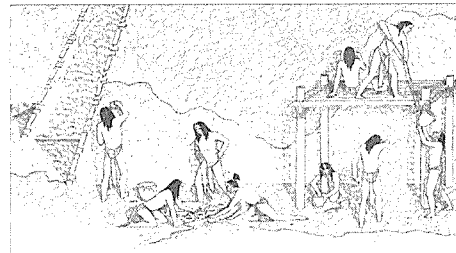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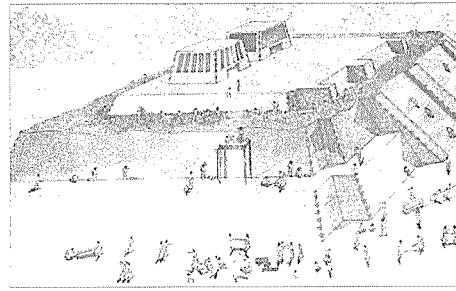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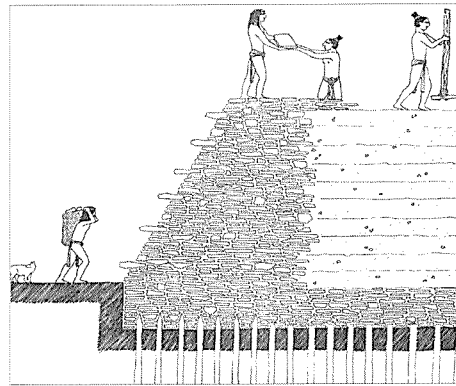
구분	이집트(쿠푸왕의 피라미드)	멕시코(태양의 피라미드)	비고
높이	147m	75m(신전높이 포함)	
용적	2,600,000m ³	1,000,000m ³	
무게	6,000,000 Ton	2,500,000 Ton	
저변	230 m	225 m	
연대	B.C 2500년	B.C100~A.D600년으로 추측	
재질	화강암과 석회암	다양한 석재 및 흙	
용도	무덤	신전	팔렌케의 '비명의 신전' 제외

두 피라미드 군의 동질성

이집트의 대표적 피라미드군인 기자의 3대 피라미드와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케찰코아틀 신전)는 공통적으로 각각 3기의 피라미드를 갖고 있다. 단순한 일치로 지나치면 그만이지만, 높이와 규모를 달리하여 건설된 3기의 피라미드가 인접하여 있고 그 꼭지점 높이가 같은 것은 분명 두 거대 피라미드 군에 대한 동질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물론 부지내의 자연적인 구배에 따라 피라미드의 높이를 달리하여 하늘에서의 균형을 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 앞에 모든 피조물은 평등하다."는 고대사회의 신정일치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여타 지역의 수많은 피라미드와 달리 이 두 곳의 피라미드가 세인들의 미스터리적 요소로 다가오는 것은 그 배치 컨셉으로 우주의 천체도를 응용한 별자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 테오티우아칸의 '죽은 자의 거리'는 은하계 그리고 피라미드의 배치는 태양계의 각 항성을 상징하는 배치로 되어 있어 신비적 요소로서의 동질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고대문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절대권력자의 신격화에 따른 인간신에 대한 우상화의 일단으로 사후 신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피라미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자의 피라미드가 '인간을 신으로' 그리고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가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로서 신성시 되었음은 지구를 반바퀴 돌린 대륙에서 수 천의 시간적 흐름의 차이에



멕시코 피라미드 건립과정

반추해 보면, 그 동질성이 인간과 우주의 시간적 개념을 떠나 경이로움을 갖기에 충분하다.

현대 건축에의 응용

현대인의 고대문명에 대한 동경과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상상은 곧잘 현대건축에 접목되어 마치 새롭게 태어난 고대 유적의 일면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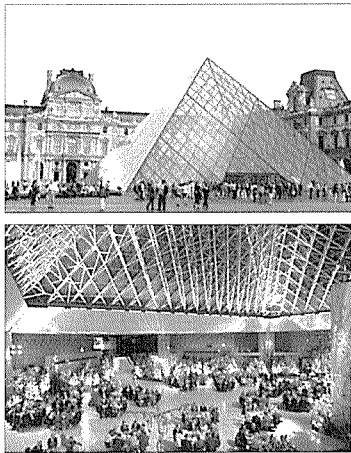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 입면을 응용한 미국의 대 식물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형들은 호기심을 넘어 우주의 기를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I.M. Pei의 “유년시절 기자의 피라미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피라미드를 응용하여 신(新)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것이 결코 천재적인 영감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지하의 역사와 땅위로 솟아 오른 루브르의 피라미드를 보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할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위대한 지구인의 유산이지만 이를 현대인이 가까이서 누리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은 건축가의 몫이다.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홀

1984년 국제현상을 통해 I.M. Pei의 루브르



르 증축 및 개조안을 채택, 1989년에 공사를 마치고 21세기를 향한 박물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다.

높이 21m 저변 35m로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를 기존 정원에 건축적 기능으로 수용함으로써 독창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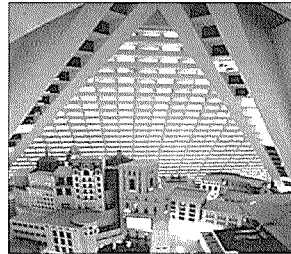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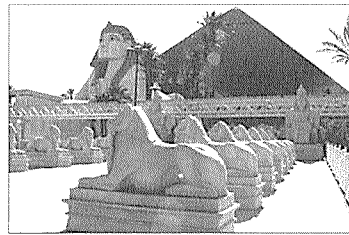
해결을 제시하였으며 일명 “나폴레옹 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리 피라미드는 와싱턴 국립미술관의 기존건물과 동관의 연결통로에서 소극적으로 채택된 바 있었다.

새로운 건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어휘로서 가장 명료한 건축적 기호가 되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 고전적 조형을 배경으로 강렬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결합시킨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자연광에 의한 지하공간의 결점이 해결되고 루브르궁을 이곳에서 바라볼 때 지하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또한 건축과 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의 실천이며, 그 직설적인 의식에 의해 현대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의 제시이기도 한다.

● 미국 룩소호텔(Luxor Hotel)

Las Vegas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다. 로마시대의 인물상이 거리 귀퉁이에서 화려함을 뽐내며, 로마의 기틀을 다진 카이사르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한겨울에도 실감나는 아외 오페라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로마시대의 조각



물도, 100만불을 한눈에 보는것도, 세계 최대라는 금광석을 보는것도 아닌 Luxor Hotel의 외관일 것이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테마로 한 그 독특한 외관(상층부의 4,470여개의 객실, 스트립 거리, 룩소의 멋진 수영장) 등 독특한

전망을 갖고 있다.

30층 높이의 반짝이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피라미드와 정문 입구에 있는 10층 높이의 거대한 스팅크스는 멋진 볼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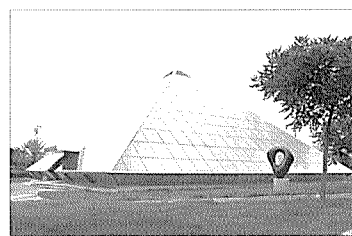
디자인 형태가 카프레왕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한다.)과 스팅크스, Luxor 신전의 진입부 등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로 불야성을 이루는 Las Vegas 최대 명소중의 하나일 것이다.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넓은 홀의 카지노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5000년 전의 신비감이 느껴지는 30층의 호텔을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10여 층 높이의 스팅크스, 4,500여 객실, 그네들 다운 스케일은 피라미드를 테마로 한 세계 최대의 건물답다.

● 춘천 물시계 전시관

2001년 “세계 물의해”를 맞이하여 춘천 공



지천 조각공원 내에 물시계 전시를 위해 마련된 전시관. 피라미드의 외형을 컬러 반사유리와 철골 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가 부족하여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임에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춘천 공지천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만한 건물이다. ㉞